

스웨덴의 마음을 훔친

‘남구의 딸’ 캠크 에이시아

〈용문초 6학년〉

지난 12월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방한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에서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사람들(Swedes in the Korean War)’보다 더 주목을 받은 이가 바로 옹호동에 사는 열두살 캠크 에이시아 양이다.

영화 상영에 앞서 마련된 기념식에서 에이시아는 단독 사회와 스피치를 맡았다. 외국 정상과 외교사절단이 대거 참석한 무거운 자리에 어린 초등학생이 사회를 맡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에이시아의 ‘캐스팅’은 남구청이 주한스웨덴대사관에 추천해 이뤄졌다. 에이시아는 앞서 6월 18일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6·25전쟁 공군전력 파견 8개국 초청

전, 현장 인터뷰 등을 진행해 큰 화제를 모았다.

에이시아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한국전에 참전해 121명이 전사한 네덜란드의 반호이츠 부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미국, 캐나다,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전세계 유엔군 참전용사들과 국경과 언어, 세대를 넘나들며 우정을 쌓아 ‘꼬마 외교관’이란 별명을 얻고 있다.

이날 에이시아는 70년 전 부산에 주둔한 스웨덴적십자병원원에 근무한 스웨덴 간호장교의 군복을 입고 손에는 스웨덴 의료진의 영정사진을 들고 등장했다. 사진의 주인공은 스웨덴 참전 의료진인 비버 블롬베리 씨로 에이시아는 그의 유족과 2년간 특별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인연을 참

푸른 눈의 노병이 전화를 들어 보인다.

호호발 발 할아버지는 아전 신발을 애지중지하였다. 눈앞에서 총알받이가 된 전우 덕에 생명을 부지한 노병은 낡았지만 잘 손질한 워크화를 손자에게 물려준다고 했다. 한국전쟁 중 의료진을 파견한 스웨덴 다큐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스웨덴은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 6개국 중 가장 먼저 의료단을 파견했다. 1124명 참전 주인공 중 생존자가 50여 명에 그치는 안타까움으로 스웨덴이 영화제작에 나선 것이다.

지난 12월 20일엔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총리 참석 하에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의 영화 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앞서 10월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민간인 첫 시사회가 있었다.

1950년 9월 유엔군의 부산탈환 직후 150명의 스웨덴 의료단이 부산항에 도착한다. 6년7개월동안 아전병원에서는 국군은 물론 연합군 심지어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병까지 치료를 했다. 훗날 북한 부상병이 스웨덴국왕에게 보낸 감사 편지도 소개되었다. 치료를 받은 민간인도 200만명 가량이 된다. 휴전후에도 서울에 의료센타를 건립하여 치료뿐만 아니라 기술전수도 하였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신이다.

당시 치료받은 국내의 환자들이 화면으로 상영되자 당사자들은 눈시울을 글썽였다. 그들이 아니면 생명을 부지했겠느냐고 큰절을 올렸던 80대 할아버지, 이분은 골수염으로 매일 뼈에서 고통이 맞지 않아 하마터면 다리를 잃을 뻔했다. 너무 아파서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아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에서는 배구선수로도 활약했다.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을 보고 나서

〈Swedes in the Korean War〉

이방인이 기록한 부산 이야기, 정작 우리는...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월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상영회가 마련됐다. 사진은 영화 상영에 앞서 가진 기념촬영.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라르스 프리스크 스웨덴 국영영화재단이사장(다큐 기획자), 김준이 씨(스웨덴병원 원장), 뢰벤 총리, 캠크 에이시아 양, 김학태·조준자(원자) 씨, 김옥순(당시 간호사) 씨, 이낙연 총리, 아랍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맨 오른쪽은 김극규(당시 병원 X-레이기사) 씨.

교장 출신 할머니는 60년 전의 기억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한다 “16세 때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이 떠나간다는 말을 들었다. 금발의 군의관이 스웨덴에서 1년간 매달 약을 보내줬어요”고 고마움을 못 잊어했다. 그 의사를 찾으려고 스웨덴까지 갔으나 보지를 못 해, 꼭 만나고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화는 단순한 의료지원의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전사상황과 인해전술로 중공군이 밀려오던 장면 등 급박하고 생생한 아전상황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총알이 쏟아지던 현장을 참전용사들이 육성으로 들려주었다. 다급한 현실에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도 없이 몸에 박힌 총알을 뽑았고, 의사들은 전염예방을 위해 포로들의 옷을 다 벗기어 태웠다.

병원부지인 옛 부산상고에 첫발을 디딜때 뽀얀면지로 밀가루를 흩어 놓은 듯 했다. 지원단의 증언은 지

금은 볼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이다. 그병원의 옛터에 롯데호텔등 빌딩이 들어선 서면일대를 방문한 노병들의 입에서는 주변의 변화에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영화 행사에 앞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한국은 전후 놀라운 변모를 거듭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강국이자 민주 국가의 롤모델이 됐다” 평가했다. 아랍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이 영화 제작이 있기까지 부산 남구청과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상영이 끝나고 “너무나 감동적이다”는 뒤통사의 평가가 귓전을 스쳤다. 몇몇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는 이들도 있었다. 잊고 지냈던 아픈 상처와 도와준 저들에 대한 빛의 무게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영화가 상영도 되기 전에 우리나라 총리를 따라 보존처 차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를 떴다. 영화관에 와서 정작 영화는 보지 않고 축하와 기념촬영만 하고

빠져 나갔다. 반면 부산을 보살피던 외국의 총리는 영화를 끝까지 목도하고 초청 객권이 모두 빠져나간 뒤 맨 마지막에 건물을 나섰다. 부산시민이 참여하고 부산의 역사가 소개되는 행사장이기도 했다. 그곳에 부산시장은 보이지도 않았다.

다큐에 출연한 상당수 의료진들이 영화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는 이야기를 대사관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 중 커스틴 요나손 여사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기부금 중 일부인 11억 원이 우리 KAIST에 전해졌다. 우리의 과거를 알기 위해 또 다른 노병의 전화를 보러가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담 너머 우리집 호박을 이웃이 거두어 주어야 할런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명애

반구대포럼 이사
부산남구신문 편집위원

다큐 ‘한국전과 스웨덴사람들’ 상영회 단독 사회

12세 어린이가 외국정상 초청행사 진행 유례 없어

남구청 추천으로 성사... 스웨덴 간호장교 복장 재연

행사에서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영어로 낭독해 참석자 전원에게서 기립박수를 받는가 하면 6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도 공연과 사회, 프레젠테이

석자들에게 들려준 큰 박수를 받았다. 딸인 피아 씨는 모친이 부산에 파병된 의료진이었는지 모른 채 성장했다.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한국에서 찍은 수 백 장의 사진을 발견하면서 모친과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아 씨는 스웨덴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일을 도우며 모친과 함께 한국에 파병 갔던 동료들과 어머니에게서 치료받은 한국인 환자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스웨덴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고 이를 에이시아에게 설명했다. 이날 에이시아는 피아 씨의 어머니가 입던 간호장교 복장을 재연한 것 외에 피아 씨 부모모님의 유품인 배지와 편을 군복에 부착해 남다른 의미를 전했다.

행사를 마친 뒤 에이시아는 “기념식 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스웨덴에 있는 피아 씨에게 보내줬는데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것 같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기념식에서 단독 사회를 맡은 용문초 6학년 캠크 에이시아 양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캠크 에이시아는 누구

캐나다인 아버지 리처드 캠크 씨와 한국인 어머니 이수정 씨 사이의 외동딸로 옹호동에서 태어난 남구 토박이다.

현재 용문초등학교 6학년으로 3학년이던 2016년부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고향의 유엔 참전용사들과 나이와 국경을 초월해 우정을 쌓으며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네덜란드 참전용사협회의 부탁으로 6.25 때 네덜란드부대를 돕다 전사한 한국인 카투스 13명의 이름을 찾아내 크게 화제가 됐다. 2018년 11월 이를 소개한 본지 기사 ‘유엔군 노병 소원 들어주는 옹호동 소녀 외교관’으로 처음 알려진 뒤 여러 언론 매체에 크게 다뤄졌다. 이후 SBS ‘영

재발굴단’, KBS ‘김제동의 오늘’ 등에 출연해 평화의 의미를 전국에 알렸다. 지난해 6.25기념 행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MC로 활동했다. 에이시아는 ‘아시아(Asia)’의 영어식 발음으로 한국이 국적이며 우리 문화에 맞춰 성(캠크)을 앞에 두고 이름(에이시아)을 뒤에 뒀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캠크 에이시아 양.

신일 이불 솜공장



- **현수를 틀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꿰매 드립니다.
- **훈수이불, 침대카바, 애기이불** 있습니다.
- **100% 목화솜, 명주솜, 배개솜** 있습니다.
- **사찰 방식 주문·제작**

☎ 위치 : 남구 동명로 146번길 47 (옹호동)
☎ 051-626-3558 / ☎ 010-3831-2457

유료광고

우리지압원



- **보건 복지부 인증**
(안마 바우처 운영)
- **국가 공인 안마사**
- **프로그램**
체형교정(목, 허리, 골반)
만성피로 스트레스 관리
건강안마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11
성산빌딩 5층(우리지압원)
예약번호 051-626-7575

유료광고

어머니 학생 모집

국가지원 무상교육

모든 과목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가 빠른 수업으로 재미나면서 행복한 학교생활로 소녀 시절 못다한 꿈!! 미용고등학교에서 펼쳐보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위치 : 부암동(통학버스 운행)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중·고등학교

문의 : (051)805-6131~4

유료광고

어머니 **중 학생** (2년 졸업)
어머니 **고등학생** (2년 졸업)



부산시가 실시하는 맞춤형 취업 희망자 모집

부산시 전액지원 (16기생모집)
(월 수당 25만원 지급)(선착순 모집)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수업내용	정원	자격
엑셀, 파워포인트 사무요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2020년 2월 24일 ~	3개월	* 엑셀 자격증 * 파워포인트 자격증 * 캐드기초, 실무 (자격증 1, 2급 자격증)	20명 (선착순)	만18이상 연령제한 없음
캐드자격증 * 수료후 취업 *	6월 11일 (5시간)	10시부터 3:20까지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사무요원 및 도면작성 및 수정		

*** 만18세이상~연령제한없음 20명 모집 (주부, 실직자, 고교및대학졸업자)**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옆, 임찬수 스피치학원 8층

유료광고

성인 학생 모집

● 부산예원고등학교
● 예원여자중학교

2년만에 졸업하는 성인어머니(중, 고등)학생 모집 늦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공부 할 차례입니다!

주간반(9시) / 야간반(6시)	
중학교 (2년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중퇴자 편입가능 ● 졸업장 취득(검정고시 없음) ● 입학금, 교과서, 수업료 전액 무료
고등학교 (2년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졸업자 / 고교 중퇴자 편입가능 ● 졸업후 대학진학(수시 가능) ● 교육비 : 한달 16,660원 ● 기초수급자 수업료 전액 무료
본교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교육부지정 1년 3학기제 2년 졸업과정 어머니 학교 ● 23년 전통의 부산최고의 성인여성교육 전문학교 ● 어머니들만 공부하는 전용 건물(학생/성인 구분) ● 예비학교 무료 운영(11월부터 국, 영, 수 기초수업)

버 스 : 42(남구) / 99(진시장) / 179(당감동) / 184(정관) → 옥성화학 하차 → 학교

4호선 : 명장역 2번출구 → 99/42번 버스 → 옥성화학 하차 → 학교

4호선 : 금사역 3번 출구 → 마을버스6번(선수촌아파트 ↔ 온천정역) → 회동동 하차 → 학교

1호선 : 온천장 4번 출구 → 마을버스6번 → 회동동 하차 → 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51(회동동)
 학력인정 부산예원중, 고등학교
입학상담 (051) 526-1852~3

유료광고